

부평미군부대의 조속한 이전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

부평미군부대의 조속한 이전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952
----------	-----

발의연월일 : 2009. 11. 20.

발 의 자 : 최만용·강문기 의원
(찬성자 8인)

□ 주 문

부평미군부대는 일제식민 치하에서 일본군대를 위한 조병창으로 해방 이후에는 자연스레 미군이 주둔하는 등 외국군 주둔의 역사를 가진 역사의 한이 서린 곳으로 지난 1996년부터 시민들이 주축이 되어 반환운동을 전개하여 그 결실로 2002년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의거 2008년까지 반환기로 결정하였으나 최근 국방부의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평택 미군기지 완공시기 지연으로 합의시한보다 8년이 늦은 2016년 이전설이 제기되고 있는 등, 275만 인천시민의 염원을 저버리고 있어 부평미군부대의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가. 주한미군 재배치협정에 따라 용산미군기지 등의 평택이전계획에 의거 이전기로 한 부평미군부대에 대하여 아직까지 이전치 않은 것은 275만 인천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하여 인천시민의 품에 돌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나. 도시의 균형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던 미군부대 이전부지에 계획된 공원 및 공공문화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그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인천 시민이 겪은 불편과 고통, 도시환경 저해요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인천광역시에서는 빠른 이전을 위해 적극적인 건의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 제안이유

부평미군부대는 2002년 개정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2008년 까지 이전을 완료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최근 국방부 “주한미군이전사업단”에서 평택미군기지 완공시기가 2015년으로 전망됨에 따라 부평미군부대도 이전이 연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오랜 반환운동 끝에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하여 사과 한마디 없이 불이행하는 것은 275만 인천시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도심지 한가운데를 차지한 미군기지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은 해소되어야 함.

따라서 부평미군부대의 조속한 이전을 통하여 이전부지에 공원 및 공공 문화체육시설의 설치로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결의안을 제출함.

부평미군부대의 조속한 이전 촉구 결의문

부평미군부대는 2002년에 개정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2008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전이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주한미군 재배치협정에 따라 용산미군기지 등의 평택이전계획에 의한 미군기지 완공시기인 2012년을 이전시기로 기대하였으나 최근 평택미군기지의 완공이 2015년으로 전망함에 따라 부평미군부대 이전도 사업기간이 무기한 연기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전부지에 공원 및 공공문화체육시설 조성을 조속히 원하는 275만 인천시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처사이고,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인천시민이 겪은 불편과 고통, 도시환경 저해요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라도 당연히 조속한 시일내에 반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는 부평미군부대의 조속한 이전을 강력히 촉구 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주한미군 재배치협정에 따라 용산미군기지 등의 평택이전계획에 의거 이전기로 한 부평미군부대에 대하여 아직까지 이전치 않은 것은 275만 인천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하여 인천시민의 품에 돌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도시의 균형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던 미군부대 이전부지에 계획된 공원 및 공공문화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그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인천시민이 겪은 불편과 고통, 도시환경 저해요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인천광역시에서는 빠른 이전을 위해 적극적인 건의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09. 1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일동